노계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

- 연중 고정가격으로 농가에 제공 -

본회는 올해부터 산란노계출하 알선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란노계산업 활성화 및 산란계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산란계 농장의 노계출하를 안정적으로 적정가격에 수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함에 있다. 또한 노계정육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노계업체 또한 안정적인 작업물량 확보가 중요해졌고, 상호 협력하여 중간손실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을 높여 산업을 발전시킨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산란노계출하 알선사업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정리/기영훈 – 자조금사업팀)

안정적인 구조 마련의 필요성

지금까지의 산란노계 출하동향을 보면 계란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노계 도태를 실시하는 경향이 컸다. 가격하락과 비수기가 맞물리는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노계도태 물량이 집중되면서 노계가격의 하락과 도태지연에 따른 손실 등이 불가피하게 되풀이 되곤 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노계업계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해외 수출물량 증가와 국내 노계육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고정적인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회는 산란업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일정한 가격방식의 산란노계 출하 알선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에는 안정적인 가격수취를, 노계업체에는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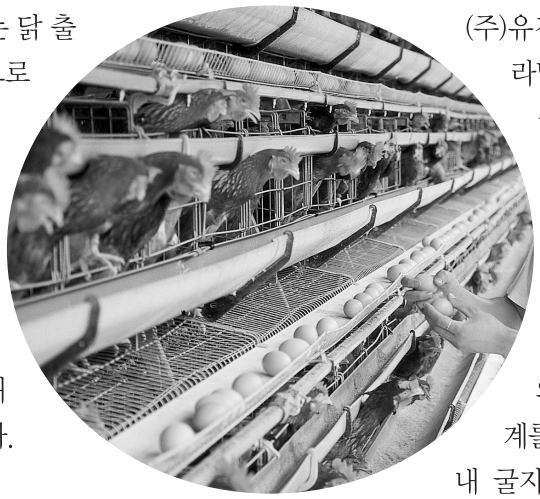
수당 350원 고정단가로 자율적 시행

전국의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은 노계출하를 원하는 산란계 농가에서는 본회를 통해 노계출하를 실시하고 일정 대금을 수취하게 된다. 본회에서는 산란계 농가의 출하량 및 일자 등을 (주)유진에 연락 후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이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며, (주)유진은 본회의 연락사항에 따라 산란계 농가의 노계를 문제점 없이 작업하고 일정 대금을 농가에 송금하는 체계이다.

사업 시행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시행되며 경과를 지켜보고 문제 발생시 보완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금 정산은 수당(1.8kg기준) 350원의 고정단가로 연간 일정한 가격에 수취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대금결제는 닭 출하일(일~목요일)을 기준으로 다음주 금요일에 이루어지며 알선에 따른 농가의 추가비용부담은 없다. 단, 상차반이 필요한 경우 상차비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등 이외의 모든 사항들은 현재까지 시행해 온 관행대로 진행하면 된다.



산란노계 출하 신청은?

우선 산란노계 출하를 희망하는 농장에서는 본회(02-588-7651)로 신청하면 출하조건을 접수받아 계약업체인 (주)유진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주)유진에서는 신청농장과 출하일을 조정하게 된다. 노계 출하일정은 농가가 원하는 날짜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배려토록 했으며, 이때 농장에서도 최소 2주전에 신청하면 출하일을 조정하는데 수월해 질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한편 노계출하시 대금결제의 지연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본회가 보증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으며, 본회와 (주)유진 간 산란노계출하 알선업무 약정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발생시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 후 시행하도록 하는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농가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란노계 전문업체 (주)유진

본 사업에 출하와 도계를 담당하는 (주)유진(대표이사 강연식)은 전라남도 여수에 유진본사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수는 130여명으로 월간 60~100만수 물량의 처리규모를 갖춘 업체이다. 또한 서울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국의 산란노계를 대상으로 도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굴지의 육가공 기업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에 저렴한 가격의 산란노계육을 강점으로 부각시키면서 '07년도에는 147만불의 수출을 달성한 업체로, 노계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원하고 있어 산란노계 출하를 원하는 농가들과 상생을 위해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노계알선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02-588-7651, 담당자 기영훈)로 연락주기 바라며 앞으로 산란계 농가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져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양계